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깜박깜박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깜박깜박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깜박깜박

완성된 이름

깜박깜박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깜박깜박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불빛이나 별빛 따위가 자꾸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모양.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미상	현재
깜박깜박	-	-	-	-
깜박깜박	-	-	-	-
깜박깜박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불빛이나 별빛 따위가 자꾸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모양.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7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깜박깜박'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불빛이나 별빛 따위가 자주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모양.

☞ 깜박깜박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깜박깜박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삼박삼박 사전 표기 요약	—	—	—	—	●→	●→
깜박깜박 사전 표기 요약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섬박섬박 문헌 수록 표기	—	—	—	—	—	●→
깜빡깜빡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삼박삼박
19세기20세기
- 깜박깜박

19세기20세기미상현재

- 심박심박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감박감박, 삼박삼박, 심박심박, 감빡감빡



감박감박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감박감박’은 19세기에 ‘삼박삼박’과 ‘감박감박’으로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삼박삼박’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 구성이 19세기부터 확인된다. ‘삼박삼박’은 현대어 ‘감박’으로 이어지는 ‘삼박’이 반복된 것이다. ‘감박감박’은 근대 국어 후기에 ‘ㅅ’을 ‘ㄱ’으로 적게 되는 경향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20세기에 나타나는 ‘심박심박’은 제1음절과 제3음절에서 ‘.’와 ‘ㅌ’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표기이고 ‘감빡감빡’은 제2음절과 제4음절 초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반영한 표기이다.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20세기까지 ‘심박심박’, ‘삼박삼박’, ‘감빡감빡’, ‘감박감박’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감박감박’으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감박감박

전체 용례 7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감박감박, 삼박삼박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감박감박, 삼박삼박

출처 1895 국한15

용례 01

66 문헌 용례

감박감박 [明滅].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 I :181

용례 02

66 문헌 용례

삼박삼박하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삼박삼박, 삼박삼박, 감빡감빡 외 1종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삼박삼박, 삼박삼박, 감빡감빡, 감박감박

출처 1912 홍도화 상:361

용례 03

66 문헌 용례

옷목에 노인 외로운 등잔은 등화가 미쳐 삼박삼박하고 벽상에 붓뒸든 파리는 절로 놀나 놀아가며.

현대어 풀이

옷목에 놓인 외로운 등잔은 등불이 맏혀 감빡감빡하고 벽에 붙어 있던 파리는 저절로 놀라 날아가며.

출처 1912 추풍감수록 439

용례 04

66 문헌 용례

쓰러져 가는 창문으로 등잔불이 삼박삼박 빛취논디.

㉮ 현대어 풀이

쓰러져 가는 창문으로 등잔불이 깜박깜박 비치는데.

출처 1929 동아일보 12월20일 5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고요한 방 외로히 안젓스려니 등불만 삼박삼박 줄고 잇지요.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4 조선일보 3월 8일 조간 3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또 잠이 와서 머리를 벽에 기대고 깜빡깜빡 조으는 중에 얼굴에 찬바람이 핵 끼쳐서.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7 조선일보 8월 10일 석간 4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원체 더우면 모든 일이 손에 잘 잡히지를 안코 또 설사 일을 잡더라도 잡박잡박 줄리어 능률(能率)이 나지 않습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감박감박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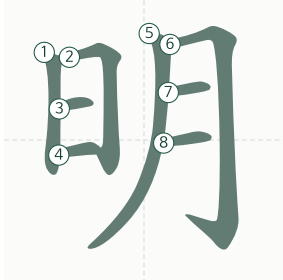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감박감박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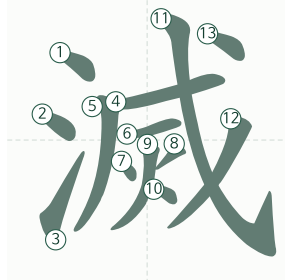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明 뜻·음 밝을 명
총 8획 · 부수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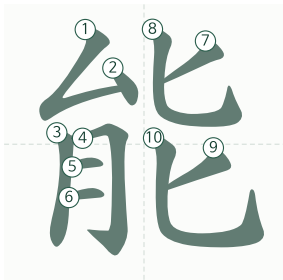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明/

滅 뜻·음 꺼질·멸할 멸
총 13획 · 부수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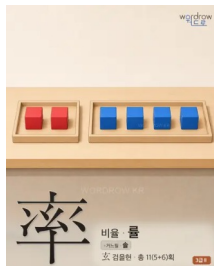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滅/

能 뜻·음 능할 능
총 10획 · 부수 肉

hanja.wordrow.kr/한자/能/

率 뜻·음 비율 률 / 거느릴 슬
총 11획 · 부수 玄




hanja.wordrow.kr/한자/率/